

#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3, 에스라 5-6장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3회기, 에스라 5-6장입니다.

성경 에스라 5장을 다시 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4장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것이 성공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16년 동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의 재건축 이후 작업이 중단되었고 프로젝트가 재개되었습니다.

재건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재건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첫 절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여 그들을 도우니라.

그러므로 재건축이 16년이 지나도 공사는 정체 상태이지만, 그 과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자직이 죽지 않았으며, 예언자들도 멸종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였으며 성경은 여기서 학개와 스가랴에 관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들을 포로 이후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포로 이전 선지자, 포로 이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이후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 기록하고 학개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유다의 총독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진 스룹바벨은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학개 1.1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사망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알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지도력 아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지만 역시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부터 다시 도전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 와 스달 보스내 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 집을 짓고 구조를 완성하려면?”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은 유다 장로들 위에 계셨으므로 그들이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보고가 다리오에게 이르고 그 일에 관한 편지가 회신될 때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닷드내가 강 건너편의 총독으로 등장합니다. 기원전 502년 6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바빌로니아 문서에 타스와 나의 이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표자로서 그의 전임자들처럼 이 유대인들이 왕에게 반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과 달리 그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대가 있어도 계속 일하는데, 여기서도 표현이 아름답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계셨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눈 아래 있을 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호와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대가 있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은 다시 왕에게까지 올라 갑니다.

이번에도 왕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리우스입니다. “이것은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강 건너편 총독 스달 보스 내 와 그의 동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화평을 보낸 편지의 초본이니라 . 우리가 유다 지방,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에 갔다는 것을 왕께 알리소서.

거대한 돌로 지어지고 벽에는 목재가 깔려 있습니다. 이 일은 부지런히 진행되며 그들의 손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들과 그들에게 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집을 짓고 이 건물을 완성하라는 명령을 주었느냐?' 우리는 또한 그들의 지도자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귀하의 정보에 대해 그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닷드내 와 다른 관리들은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형벌의 힘으로 무장한 황실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당신이 강 너머를 읽을 때마다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페르시아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그들이 왕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오래 전에 건축되어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성한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하시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이 전을 멸하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리우스에게 그들이 왜 곤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짧은 역사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13절부터 시작되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니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전에서 취하여 한 사람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가 총독으로 삼은 세스바살이라 이름하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이 기구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맥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키루스가 왕에게 칙령을 내린 지 539년이 지났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왕 다리우스가 등장합니다. 대략 기원전 520년쯤이다. 그것은 나중에이고 이제 사이러스는 더 이상 권력을 잡지 못합니다.

이제 다리우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 모든 역사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 있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 조사하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왕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전 왕, 왕들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는지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과 20년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536년에 재건하려는 원래 시도와 520년에 다리우스에 대한 작업이 재개되기까지 16년의 기간이 지났 습니다 .

당신은 그 기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리우스는 역사적 문서를 확인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 봉헌되고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리오 왕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6장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매 바벨론의 서관에 두루 살폈더니”로 시작하는데, 다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반포했다는 기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디타니아에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집의 일을 가만히 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총독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전을 그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 유대인 장로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그로 하여금 재건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비용은 이 사람들에게 전액을 지급하되 지체 없이 왕의 세입에서 강 건너편에서 선지자들의 조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값아야 하리이다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칠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양과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이니라

날마다 어김없이 주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를 드리며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것은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감동하사 역사를 계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국고에서 돈을 내어 하게 하십니다.

11절,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경하면 들보를 그 집에서 뽑아 그 위에 엎어 그 집으로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만일 이 일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헐려고 손을 쓰는 왕이나 백성이 있으면 그 곳에 자기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감히 당신이 법령을 제정하여 모든 근면함을 다하여 행하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 왕, 이교도 왕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페르시아 왕들이 단지 유대인들을 위해 행했던 독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관용적이었고 이로 인해 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587 빼기 70, 517을 기억하세요. 드디어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귀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의 조서를 좇아 스달 보스내 와 그 동관들이 다리오 왕의 명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니라. 그리고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아들 스가라의 예언을 인하여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명령에 따라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 성전은 다리우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완공되었더라. 왕.

또 달력을 보면 기원전 517년, 516년 2월이나 3월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교도 왕, 즉 이교도 행정부를 사용하실 때.

여기에는 아닥사스다(Artaxerxes)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훨씬 나중에 465, 424 BC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둘 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재건축과 귀환, 제단 재건축, 성전 재건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집을 다시 짓기 때문에 헌납해야 합니다. 16-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돌아온 나머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시, 기쁨 모티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에서 제물을 드렸느니라.” 이 잔치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소 100마리, 숫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그 반열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반열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우와. 구약성서에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이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희생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작은 규모로 우리가 두 번째 성전 기간이라고 부르는 헌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행해진 일이며 기쁨으로 행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그 땅으로 돌아와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짓고,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배 기간 동안 반드시 지키지 않았던 것. 그러므로 이제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느니라.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출애굽기와 유사한 내용을 다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유월절이 있었는데 이제 19절부터 돌아온 포로들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스스로 정결케 하였음이라.

모두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 모든 포로들을 위해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과 연합하여 그 땅 백성의 부정에서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먹었다. 그들이 기쁨으로 칠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키사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것을 도우셨음이라 이스라엘.” 그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출애굽기와 평행되는 내용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축하하고 있습니다. 왕정 기간 동안 유월절은 여러 번 무시되었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몇 번이나 관찰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다시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집에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리오의 집에서 움직이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3회기, 에스라 5-6장입니다.